

慶州出土 磚佛 如來三尊像

全 鑿 礪

近者 慶州地方의 어느 土木工事場에서 新羅時代의 優秀한 磚佛 如來三尊像 數點이 出土되었다는 所聞이 傳해오던 차에 지난 七月 中旬 市內 古美術商에 그 中의 一點이 있다고 생각되는 遺物이 入手되어서 多幸히 이것을 過眼할 機會를 얻게 되었다.

灰黑色 瓦質로 구어진 높이 三三·八 cm 폭 三九 cm 의 一種의 瓦佛로서 그 上邊은 中央이 높고 左右가 若干 얕은 三山形의 磚佛板 形式이다. 그 中央部에는 如來坐像을, 그 左右에는 脇侍菩薩立像을 一軀씩 高肉彫의 範型으로서 彫出し킨 것인데, 이 三尊佛의 台座下邊은 그대로 이 磚板의 下邊이 되어 있어서 이 台座의 두께 때문에 直立安定해서 세울 수 있도록 되어 있다.

中央의 本尊像은 仰蓮으로 된 四角上台와 覆蓮으로 된 下台 사이에 八角 中台를 고인 蓮華座 위에 結跏趺座하고 있으며, 머리는 素髮, 肉髻는 높고, 목에는 三道가 뚜렷하게 表現되어 있다. 袈衣는 右肩偏袒, 印相은 바른 손은 觸地印, 왼손은 어깨 근처에까지 들어서서 外掌한 듯한 형상이다. 頭光과 身光은 각기 同心圓의 雙輪으로 簡素하게 表現되어 있으며 台座의 下台石 覆蓮花瓣이 一部 脫落되어 있고 顔面右眼에는 깊은 傷痕이 남아 있으며 顔面은 매우 磨滅되어 있어 거의 表情을 살필 수 없이 되어 있으나 同一한 場所에서 發見된 數個의 遊離磚佛頭 中 本尊佛頭 一例를 보면 石佛에서 보는 따위의 柔和한 微笑를 띄우고 있다. 膝幅은 一三·七 cm 佛像高는 一六 cm, 台座高는 一〇 cm, 頭光部까지 合한 本尊像 全高는 二八·七 cm 이다.

左側 脇侍菩薩은 肉髻 모양의 單純한 寶冠을 쓰고 있으며 垂髮은 없고

右腕은 앞으로 들어서서 앞가슴 위에서 持物을 쥐고, 左腕은 아래로 드리워서 外掌한 것처럼 보인다. 袈衣는 蓮華座의 上台를 덮었으며 머리에 는 圓光으로 된 頭光이 表現되어 있는데 이 頭光에는 왼쪽으로부터 바른 쪽으로 展開되어 가는 두 가닥의 線條가 장식되어 있다.

右側 脇侍菩薩의 頭部 및 頭光의 表現은 左脇侍와 다를 것이 없으나 合掌하고 있으며 瓔珞이 身體前面에서 交叉되어 있고 袈衣는 蓮華座의



上台를 덮으면서 左右로 展開되어 있다. 이 左右 脇侍佛의 側面에는 蓮華唐草文으로 생각되는 華蔓이 한줄기씩 立像높이와 對等한 部分까지 陽刻되어 있으며 이 塼板의 左右 및 上邊周緣으로 돌아가면서는 蕪頭모양의 簡略한 陽刻圖文이 장식되어 있다. 現在 本尊像 右側에서 脇侍佛과의 사이가 쪼개져서 파손되어 있으며, 同時에 出土된 것으로 보여지는 同一한 塼佛破片의 積은 部分들이 이와함께 入手되어 있다. 또 이 塼佛을 洗滌할 때에 發見한 것이지만 注意해서 보면 佛體와 蓮華座의 各部에 黃色 및 朱色 塗料가 많이 붙어 있는데 이것은 아마도 이 塼佛이 往古에 全面的으로 丹彩되었던 자취라고 생각된다.

필라델피아美術館 新收品 狗子圖

崔 淳 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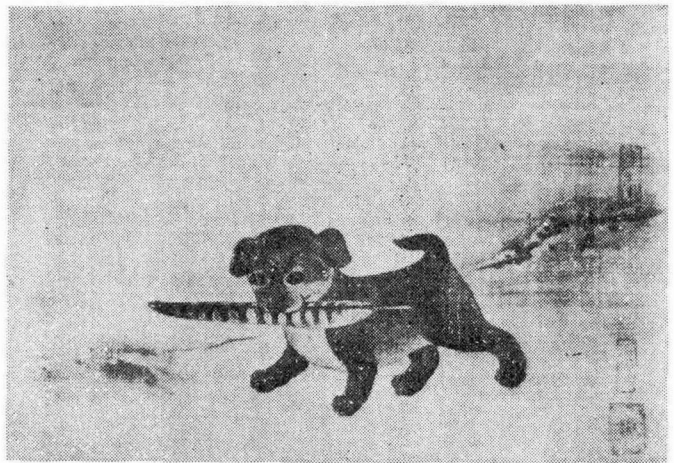
李朝宗室 出身의 畫人으로서 中宗代에 特異한 畫風을 남긴 杜城令 李巖의 作品에 恰似한 李朝繪畫 一點이 近來 美國 필라델피아 美術館에 收藏되어 注意를 끌고 있다. 絹本에 着彩한 小品으로서 稚氣滿滿한 狗兒한 마리가 榻의 깃을 물고 만족해 하는 愛嬌있는 그림에 다음과 같은 印款이 右側에 차례로 적혀 있다.

宣 奉

張 川

海 陽

元來 이 그림은 東京 岸偉一氏가 所藏했었고 日本의 重要美術品으로 指定되었던 完山靜仲筆 猫狗圖(朝鮮古蹟圖譜 卷十四 一九六五面 所載)의 狗兒部分을 그대로 옮긴 그림이라고 볼 수 밖에 없는 稀世한 作品이다. 이 款印들이 이 그림의 所藏印이라고 斷定할 수는 없지만 이것들이 李巖과는 關係가 없는 道장들이며 오히려 日本人 畫僧「永海」와의 關係를 밝혀 볼만한 緣由가 있다고 생각된다. 永海라는 사람은 A·D·一六二〇年頃に 出生한 九州人이라고 傳하며 또 明治七年十二月二十四日



記한 岸氏所藏 猫狗圖 雙幅과 國立博物館所藏 母狗圖 등이 가장 顯저한 작품이고 德壽宮美術館에도 傳 李巖作의 優秀한 翎毛圖가 한 幅 남아 있는 데 過去에 一部 日本人들의 著述과 또는 近者에 國內의 一部人士들이 이들 作品을 日本畫로 看做하려는 主張이 있어서 언제까지나 이러한 問題를 尋常하게 넘겨 보아서는 안될 것 같다. 「完山靜仲」으로 落款한 李巖을 日本畫家라고 보기 비릇한 것은 狩野永納이 그의 著書 本朝畫史에서 莫然하게 室町時代の 畫僧이라고 推測한 후부터였는데 日本사람중에서도 明治年代의 「古畫備考」著者는 李巖의 落款例를 一일히 收錄하면서 이를 朝鮮畫家라고 밝힌 例도 있는 것이다. 어쨌든 李巖의 作品이

七十二歲에 죽은 文晁 門下의 畫家에 永海라는 사람이 또 있었다고도 한다. 그러나 前者 永海는 號를 張川이라고도 했고 그의 款印中에는 「宣奉」이라는 것을 使用했었음을 傳해주는 記錄이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張川과 張川 그리고 「永海」와 「陽海」의 類似性 등으로 보아 이 印款들이 或如 畫僧 永海의 所藏印이 아니었는가의 與否에 關해서 一考해 볼만한 意義가 없지 않을가 한다. 李巖의 그림은 元來 寡作이었던 모양으로 前